

[성주간] 성지주일 수난복음 가해(짧은 수난기)

마태 27, 11 - 54



마 태 오 가 전 한 우 리 주 예 수 그리스도 의 수 난 기 입 니 다.



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총 독 앞 에 서 셧 다. 총 독 이 물 었 다. "당 신 이



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?"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셧 다.



"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." 그 러 나 수 석 사 제 들 과 원 로 들 이



당 신 을 고 소 하 는 말 에 는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으 셧 다.



그 때 에 빌 라 도 가 예 수 님 께 물 었 다. "저 들 이 갖 가 지 로



당 신 에 게 불 리 한 증 언 을 하 는 데 들 리 지 않 소?" 그 러 나 예



수 님 께 서 는 어 떠 한 고 소 의 말 에 도 대 답 을 하 지 않 으 셧 다.



그 래 서 총 독 은 매 우 이 상 하 게 여 겼 다. 축 제 때 마 다 군 중



이 원 하 는 죄 수 하 나 를 총 독 이 풀 어 주 는 관 례 가 있 었 다.



마 침 그 때 에 예 수 바 라 빠 라 는 이 름 난 죄 수 가 있 었 다.

(다른사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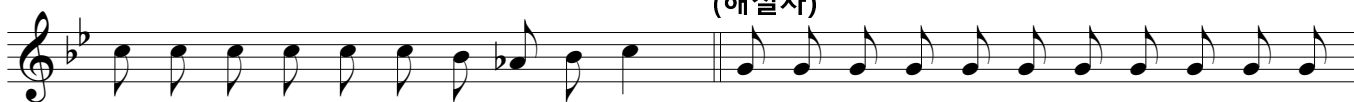


사 람 들 이 모 여 들 자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물 었 다. "내 가



누 구 를 풀 어 주 기 를 원 하 오? 예 수 바 라 빠 요 아 니 면

(해설자)



메 시 아 라 고 하 는 예 수 요?" 빌 라 도 는 사 람 들 이 예 수 님



을 시 기 하 여 자 기 에 게 넘 겼 음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이 다.



빌 라 도 가 재 판 석 에 앉 아 있 는 데 그 의 아 내 가 사 람 을 보

(다른사람)



내 어 말 하 였 다. "당 신 은 그 의 인 의 일 에 관 여 하 지 마 세 요.



지 난 밤 꿈 에 내 가 그 사 람 때 문 에 큰 괴 로 움 을 당 했 어 요."

(해설자)



그 동 안 수 석 사 제 들 과 원 로 들 은 군 중 을 구 슬 려 바 라 빠

를 풀 어 주 도 록 요 청 하 고 예 수 님 은 없 애 버 리 자 고 하 였 다.

(다른사람)

총 독 이 그 들 에 게 물 었 다. "두 사 람 가 운 데 에 서 누 구 를

(해설자)

풀 어 주 기 를 바 라 는 것 이 오?" 군 중 이 대 답 하 였 다.

(회중)

(해설자)

"바 - - 라 빠 요."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물 었 다.

(다른사람)

"그 러 면 메 시 아 라 고 하 는 이 예 수 는 어 똥 게 하 라 는 말 이 오?"

(해설자)

(회중)

(해설자)

군 중 이 모 두 외 쳤 다. "십 자 가 에 못 박 으 시 오!" 빌 라 도 가

(다른사람)

다 시 물 었 다. "도 대 체 그 가 무 슌 나 뿐 짓 을 하 였 다 는 말 이 오?"

(해설자)

(회중)

군 중 은 더 욱 큰 소 리 로 외 쳤 다. "십 자 가 에 못 박 으 시 오!"

(해설자)

빌 라 도 는 더 이 상 어 찌 할 수 가 없 을 뿐 만 아 니 라 오 히 려

폭 동 이 일 어 나 려 는 것 을 보 고, 물 을 받 아 군 중 앞 에 서 손

(다른사람)



(해설자)



(다른사람)



(해설자)



(다른사람)

(해설자)



"유 다 인 들 의 임 금 님 만 세!" 군 사 들 은 또 예 수 님 께 침 을



뺄 고 갈 대 를 빼 앗 아 그 분 의 머 리 를 때 렸 다. 그 령 게 예 수



님 을 조 롱 하 고 나 서 외 투 를 벗 기 고 그 분 의 겹 옷 을 입 혔 다.



그 리 고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 박 으 러 끌 고 나 갔 다. 그 들



은 나 가 다 가 시 몬 이 라는 키 레 네 사 람 을 보 고 강 제 로 예



수 님 의 십 자 가 를 지 게 하 였 다. 이 욱 고 골 고 타 곧 '해 골 터'



라 는 곳 에 이 르 렸 다. 그 들 이 쓸 개 즙 을 섞 은 포 도 주 를 예 수



님 께 마 시 라 고 건 냈 지 만, 그 분 께 서 는 맛 을 보 시 고 서 는



마 시 려 고 하 지 않 으 셸 다. 그 들 은 예 수 님 을 십 자 가 에 못



박 고 나 서 제 비 를 뺏 아 그 분 의 겹 옷 을 나 누 어 가 진 다 음,



거 기 에 앓 아 예 수 님 을 지 켜 다. 그 들 은 또 그 분 의 머 리 위 에



죄 명 을 붙 여 놓 았 다. 거 기 - 에 는 '이 자 는 유 다 인 들 의



임 금 예 수 다' 라 고 쓰 여 있 었 다. 그 때 에 강 도 두 사 람 도



예 수 님 과 함 께 십 자 가 에 못 박 혔 는 데, 하 나 는 오 른 쪽 에



하 나 는 왼 쪽 에 못 박 혔 다. 지 나 가 던 자 들 이 머 리 를 흔 들



어 대 며 예 수 님 을 모 독 하 면 서 이 렇 게 말 하 였 다.

(다른사람)



"성 전 을 허 물 고 사 흘 안 에 다 시 짓 겠 다 는 자 야, 너 자 신 이



나 구 해 보 아 라. 네 가 하 느 님 의 아 들 이 라 면 십 자 가 에

(해설자)



서 내 려 와 보 아 라." 수 석 사 제 들 도 이 런 식 으 로 율 법 학

(다른사람)



자 들 과 원 로 들 과 함 께 조 롱 하 며 말 하 였 다. "다 른 이 들 은

구원 하였 으 면 서 자 신 은 구 원 하 지 못 하 는 군. 이 스라 엘

의 임 금 님 이 시 면 지 금 십 자 가 에 서 내 려 와 보 시 지.

그 러 면 우 리 가 믿 을 터 인 데. 하 느 님 을 신 뢰 한 다 고 하 니,

하 느 님 께 서 저 자 가 마 음 에 드 시 면 지 금 구 해 내 보 시 라 지.

(해설자)
'나 는 하 느 님 의 아 들 이 다.' 하 였 으 니 말 이 야." 예 수 님 과

함 께 십 자 가 에 못 박 힌 강 도 들 도 마 찬 가 지 로 그 분 께 비

아 냇 거 렸 다. 낮 열 두 시 부 터 어 둠 이 온 땅 에 덮 여 오 후

세 시 까 지 계 속 되 었 다. 오 후 세 시 쯤 에 예 수 님 께 서 큰 소
(그리스도)

리 로 부 르 짓 으 셧 다. "엘 리 엘 리 레 마 사 박 타 니?"
(해설자) (그리스도)

이 는 "저 의 하 느 님, 저 의 하 느 님, 어 찌 하 여 저 를 버 리 셧

(해설자)



습 니 까?" 라 는 뜻 이 다. 그 곳 에 서 있 던 자 들 가 운 데 몇 이

(다른사람)



이 말 씀 을 듣 고 말 하 였 다. "이 자 가 엘 리 야 를 부 르 네."

(해설자)



그 러 자 그 들 가 운 데 한 사 람 이 곧 달 려 가 서 해 면 을 가 저 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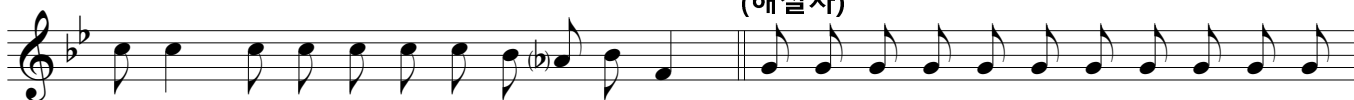
신 포 도 주 에 듬 뵃 적 신 다 음, 갈 대 에 꽃 아 예 수 님 께 마 시 게

(다른사람)



하 였 다. 그 러 나 다 른 사 람 들 은 말 하 였 다. "가 만, 엘 리 야 가

(해설자)



와 서 그 를 구 해 주 나 보 시 다." 예 수 님 께 서 는 다 시 큰 소 리



로 외 치 시 고 나 서 숨 을 거 두 셧 다. [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.]

(해설자)



그 러 자 성 전 휘 장 이 위 에 서 아 래 까 지 두 갈 래 로 찢 어 졌 다.



땅 이 흔 들 리 고 바 위 들 이 갈 라 졌 다. 무 덤 이 열 리 고 잠



자 던 많 은 성 도 들 의 몸 이 되 살 아 났 다. 예 수 님 께 서 다 시



살 아 나 신 다 음, 그 들 은 무 덤 에 서 나 와 거 록 한 도 성 에 들 어 가



많 은 이 들 에 게 나 타 났 다. 백 인 대 장 과 또 그 와 함 께 예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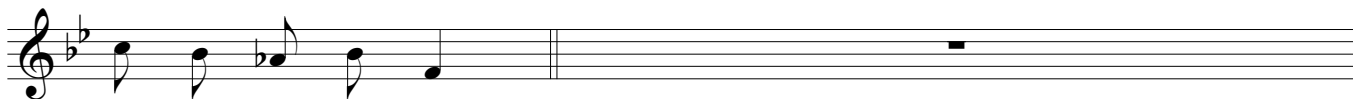


님 을 지 키 던 이 들 이 지 진 과 다 른 여 러 가 지 일 들 을 보 고

(다른사람)



몸 시 두 려 워 하 며 말 하 였 다. "참 으 로 이 분 은 하 느 님 의 아



드 님 이 셧 다."

(사제)

(회중)



주 님 의 말 - 씬 입 니 다. 그 리 - - 스 도 - 님 찬 미 합 니 다.